『종교와 문화』 제 4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pp. 131-167.

#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 재 식*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역사적 전개
Ⅲ. 한국교회일치 운동의 현황
1. 신학: 일치운동에서 신앙고백과 신조
2. 기구: 일치운동에서 기관과 조직
3. 의례: 일치운동에서 예배와 예전
Ⅳ.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위상과 특징, 전망
1.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위상
2.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특징
3.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전망과 방향
Ⅴ. 나가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교회일치운동(ecumenical movement)은 다양한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연합운동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일치운동으로 인해 갈등하고 분열해 왔다. 이 글의 관심은 일치운동으로 인해 분열이라는 트라우마를 지닌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역사적인 접근이나 기구적인 접근을 택했다.[1] 또한 상당수의 논의가 일치운동에

*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참여 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옹호부터 맹목적인 반대까지 상반된 관점을 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전개되었다.[2] 더불어 논의 주제는 민주화와 인권, 통일운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민주화 이후를 다룬 논의가 상당히 드물다.[3]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대한 기존의 저작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을 하나의 구체적인 종교현상으로 이해하면서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갈등과 분열의 역사적 궤적 안에서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일치를 지향하면서 해온 '모든 일치활동'을 대상으로 삼

---

1)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에 대해 역사적·기구적 접근의 대표적 저작으로 다음을 참고하라, 전택부,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협의회, 1979); 박상증 편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임희국, 「한국교회사에서 전개되어 온 에큐메니칼 운동」,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87-309;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홍성사, 2017);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9); 조병호, 『한국기독청년학생운동 100년사 산책』 (서울: 땅에 쓰인 글씨, 2005);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50주년 기념사업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50년사』 (서울: 다락원 1998).

2)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대해 당파적 경향은 주로 장로교회의 분열 원인과 과정을 다룬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열의 원인과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관련된 다양한 입장의 논의로 다음을 참고하라. 연규홍,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 『장로교회와 신학』 3 (2006): 87-110; 이상규, 「1950년대 한국장로교회 분열과 연합에 대한 검토」, 『장로교회와 신학』 3 (2006): 47-86; 「한국장로교회에서의 세계교회협의회(W.C.C.)」, 『개혁신학』 16 (2010), 45-88; 김명배,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역사와 일치 추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개혁신학』 23 (2008): 241-277; 박응규,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재조명」,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149-182; 임희국,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역사」,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39-82; 정병준,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183-198.

3) 민주화 이후의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드물다. 손승호, 「1987년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변화」, 『기독교사상』 709 (2018.1): 30-39; 「민주화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의 침체와 활로 모색-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8 (2018): 31-68 정도를 언급할 수 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과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김동진,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1) 등이 있다.

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의 종교현상으로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살피기 위해 그 활동의 역사와, 그 과정과 산물인 일치운동의 이론적, 사회적, 제의적 측면을 검토한다. 이런 범주적이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종교활동으로서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 일치운동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압축해서 조망한다. 일치운동이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발현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일치운동의 시기를 구분한다. 제3절에서는 일치운동을 신학, 기구, 예전의 세 가지 영역에서 개괄한다. 신학은 이론적 차원으로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한 신앙고백이나 신조, 신학적 측면의 활동을 검토한다. 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으로 일치운동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기관이나 조직 등을 기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예전에서는 실천적 차원으로 한국교회의 공동예배나 일치기도회 등의 의례적 측면을 다룬다.

제4절에서는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위상과 성격, 전망을 다룬다. 일치운동의 위상에서는 종교지형, 주체, 주제라는 세 가지 차원에 짚어본다. 한국종교와 한국 그리스도교 지형인 종교지형과, 일치운동의 주도적 집단인 주체와, 일치운동의 핵심 주제를 함께 고려한다. 이를 통해 신학적으로 접근한 기존의 논의가 담지 못했던 일치운동의 측면을 드러내고, 일치운동의 위상을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역사적 경험과 전개 상황에 따른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특징을 서술하고, 일치운동의 방향과 주체, 교육의 측면을 검토하면서 현재 정체된 일치운동을 전망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의 주제인 '일치운동'은 '교회일치운동'이나, '에큐메니컬운동', '에큐메니즘'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논의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 대신 '교회일치운동'이나 '일치운동'으로 표기한다. 현재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한국교회를 '에큐메니컬 측'으로, 이에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반에큐메니컬 측'으로 표기한다. 그렇지만 기존 저작에서 '에큐메니칼'로 표기된 경우는 그대로 인용한다.

더불어 이 글은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을 다루지만, 현실은 한국 그리스도교 전체

가 아닌 개신교의 에큐메니컬 측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함께하는 최근의 일치운동은 논의의 흐름에 따라 간략히 언급될 뿐이다.[4] 이것은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이 개신교의 주 관심사로 개신교 에큐메니컬 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개신교 에큐메니컬 측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전개라는 한계는 분명하다.

## Ⅱ.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역사적 전개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의 전개과정은 한국교회가 경험한 일제강점기,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군사독재와 산업화, 민주화 등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조망한다. 이것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시기를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을 한국사회의 여러 구성 요인과 엮이면서 발현된 역동적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 구분을 따른다.[5]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한국사회와 고립되어 발생한 교회적 차원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파악할 때, 한국적 일치운동의 시기적 변화와 성격과 특징이 보다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개신교 전래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하면서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의 흐름을 살펴보자.

첫째 시기는 개신교 전래부터 일제강점기까지로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은 외세의 개입이 갈수록 강화되고 이에 따라 한국인의

---

4) '그리스도교'(Christianity)는 개신교(Protestantism), 가톨릭(Roman Catholic), 정교회(Oriental Orthodox) 등 다양한 분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가톨릭의 경우 기관이나 조직, 기존 발표된 저작의 표기에 따라 '로마 가톨릭'이나 '천주교'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

5) 유사한 관점의 논의로 임희국, 「한국교회사에서 전개되어 온 에큐메니칼 운동」과, 김주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담론 분석」 등을 참고하라.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때였다. 당시 한국교회는 주권을 지키려는 민족운동과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계몽운동에 적극 관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사회변혁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6)]

한국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자생적이고 주체적으로 출발했다. 가톨릭은 조선 유학자들이 주어사-천진암에서 서학(그리스도교) 서적을 강학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신교도 한국인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 신앙을 받아들였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자생적으로 뿌리내린 상황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선교지 분할정책과 개교회 성격이 강화된 교파주의 교회로 인해,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하나의 제도적인 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교파별로 교회를 세웠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교회일치를 위해, '선교사연합공의회'를 비롯해서 '조선성서공회', '조선예수교서회'와 같은 연합기구를 조직했다. 당시 교회일치를 위한 대표적인 조직이 1924년에 설립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이다.[8)]

---

6) 독립협회(1896), 신민회(1907), 국채보상운동(1907), 안악사건(1910), 105인사건(1911), 삼일운동(1919), 신간회(1927) 등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주요 사건들 대부분이 한국교회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다.

7) 한국교회 초기 교회연합사업의 전개와 특징, 한계와 의미 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안교성, 「해방 전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특징」, 『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88 (2009): 7-17; 안교성, 「역사의 화해, 화해의 역사」,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303-332;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201-228.

8) 이 조직은 1924년 10월 24일 새문안교회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총 53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당시 이 기구에는 교단뿐만 아니라 개신교계의 여러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단체로 조선예수교장로회, 미감리교연회, 남감리교연회, 미국 남북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미국 남북감리교회 선교부, 영국성서공회, 조선기독교청년회(YMCA), 캐나다연합교회 선교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조선주일학교연합회 등이 가입했다. 1930년에 조선예수교서회가, 1931년 기독교여자절제회가 가입했다. 이 기구는 교회와 선교기관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교회협의회(council of churches)보다 그리스도교협의회(Christian council)이다.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중심으로 세계교회와 교류했다. 1925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국제선교협의회(IMC)에 가입하고, 1928년 예루살렘의 제2차 국제선교대회에 장로교회 대표가 참석했다. 1930년대 들어 일치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일제 탄압과 교회지도자들의 투옥과 망명, 재한 선교사들의 친일적 선교정책, 신사참배로 인한 한국교회의 내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938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1945년 한국 개신교 교단들이 일본 기독교단에 흡수 통합되면서 일치운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서구의 선교운동과 일본제국주의라는 두 맥락이 엮이면서 전개되었다. 한국교회 안에 선교사와 선교회가 주도하는 기구 중심의 일치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심 갖는 운동 지향적 일치운동이 되었다. 이런 운동 지향적 일치운동은 이후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주요 흐름이 되었다.

둘째 시기(1945-1960)는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기였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분단, 건국,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쿠데타를 경험했다.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교회 조직과 사회 조직의 재건을 시도했으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남북 양쪽에서 정당을 조직했다.[9)]

해방 이후 교회 재건이나 복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친일잔재 청산이며, 다른 하나는 분열된 교회의 통합이었다. 그런데 과거 청산과 교회 재건의 과정에서 의견 대립과 신학 논쟁이 촉발되어 교단에서 내분이 발생하고 교회가 분열되었다. 한국 개신교의 최대 교세였던 장로교회는 1950년대 고려신학

9) 해방 정국에서 남한사회의 정국을 주도한 인물들 상당수가 개신교 지도자들이었다. 김구, 김규식, 이승만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신교 배경이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그 지방 조직의 상당히 많은 곳에서 목사들이 주도했다. 같은 시기에 북한사회의 정치지도자로 활동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개신교계 지도자였다. 1945년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유하영과 한경직을 중심으로 신의주에서 '기독교민주사회당'이 결성되었다.

교 측(고신), 조선신학교 측(기장), 장로회신학교 측(예장통합), 총회신학교 측(예장합동) 넷으로 분열했다. 또한 해방 후 기독교한국루터교회 등 새로운 교단이 설립되면서 한국교회의 교파 지형은 해방 전보다 복잡해졌다. 교단이 재건되면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후신으로 '한국기독교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외부 요인으로 한국전쟁을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은 국토의 분단과 남북교회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공산주의를 피해 북한에서 남하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개신교인들은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 시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안에서 반공주의를 추동하는 강력한 주체가 되었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시기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의 보수반공주의의 보루가 되었으며, 한국교회 안에서는 일치운동의 대척점에 선 반에큐메니컬 측의 중심이 되었다.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교류를 재개했다. 한국교회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 열린 WCC 제1차 총회에 참석하고 한국장로교회는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렇지만 1955년 이래 한국교회 안에 WCC와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반대가 있었으며, 이것은 교회 분열로 이어졌다. 한국장로교회는 1959년 총회에서 교단이 분열되었다. WCC와 교회일치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후 예장통합)으로, 반대하는 교회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후 예장합동)으로 분열되었다.

1950년대 연속된 교회 분열 이후 각 교단은 교회일치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부터 극단적인 반대까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10] 한국 개신교의 최대 교파인 장로교회는 분열 후 교단별로 국내외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세 가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예장통합은 국내 에큐메니컬 기관에 가입하고 WCC는 일시적으로 탈퇴했다가 1970년에 다시 가입했다. 기장은 둘 모두 가입했다. 고신과 예장합동

10) 1950년대 교회분열과 에큐메니컬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교성, 「에큐메니칼 교회로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정체성과 증언」, 『장신논단』 40 (2011): 11-35를 참고하라.

은 국내 에큐메니컬 기관과 WCC와 관계를 모두 단절했다. 감리교는 둘 모두 가입했으며, 성결교는 둘 모두 탈퇴했다.

그리고 이 분열 과정에서 각 교단이나 진영은 WCC, 복음주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이하 NAE),[11] 국제기독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이하 ICCC) 등의 국제 기독교 단체들과 관련을 가졌다. 에큐메니컬 측은 WCC와, 반에큐메니컬 측은 NAE와, 특히 고신과 예장합동은 ICCC와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12] 반에큐메니컬 측은 후원하던 ICCC의 입장을 답습하면서 해외 에큐메니컬 기관은 물론 국내 에큐메니컬 기관도 문제 삼았다.

이 시기는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지형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강화된 반공주의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교회 분열로 인해 한국 개신교의 절반이 반에큐메니컬 측이 되었다. 이후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에큐메니컬 측의 전유물처럼 되었고, 반공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반에큐메니컬 측은 일치운동에 대해 비판적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게 된다.

셋째 시기(1960-1990/1987)는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정착기이자 전성기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군부독재와 산업화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비민주화, 경제적 불평등화,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현실 인식과 대응에서 두 흐름으로 나뉘었다.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측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민주화에 집중했다. 1980년대 들어서 에큐메니컬 측은 민주화와 더불어 통일문제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에큐메니컬 측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의

---

11) 통상 NAE의 국제기구인 World Evangelical Fellowship(WEF, 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전신)을 복음주의협의회라고 한다. 한국에서 NAE를 '복음동지협의회'로 불렀다. 한편 한국의 NAE는 박형룡을 중심으로 결성된 ICCC 계통의 근본주의 모임으로 WEF와는 다른 성격의 조직이다.

1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925;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641. ICCC의 모체인 미국기독교회협의회는 처음부터 미국교회협의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언'(이후 88선언)을 발표하고, 분단 50년째인 1995년을 민족의 '희년'으로 선포하였다. 이런 활동은 남북화해와 협력운동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이 시기 일치운동을 끌고 가는 추동력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등에 결합된 도시산업선교운동이나 민중교회운동 등 현장 활동이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반에큐메니컬 측은 체제 옹호적인 보수적 태도를 취했다.[13] 반에큐메니컬 측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지배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14] 반공과 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반에큐메니컬 측은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에큐메니컬 측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88선언 반대를 동력으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고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했다.

한국교회가 양극화되고 반에큐메니컬 측의 조직화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이 시기의 전후와 비교할 때, 에큐메니컬 측이 이끄는 일치운동은 한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나 추동력에서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일치운동이 진보적인 일부 교계 지도자나 소수의 교회 중심이었다면, 1980년대 일치운동은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공교회적인 성격을 지녔다.[15] 또한 에큐메니컬 측은 가톨릭과 연대를 시작하고, 사안에 따라 이웃종교와도 협력했다. 동시에 해외 에큐메니컬 기관이나 운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며, 일치활동의 상당 부분은 해외교회의 경제적 협력과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과 긴밀한 연대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 민족민주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넷째 시기(1990/1987-현재)는 한국교회 일치운동이 다변화한 시기이자 침체기

---

13)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통령(국가)조찬기도회, 기독실업인회, ICCC 한국지부, 한국기독교반공연맹, 구국선교단과 구군십자군, 통일교 등이 삼선개헌 전후와 유신체제 기간에 정권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 (2022): 5-39를 참고하라.

14) 물론 반에큐메니컬 측만 아니라 한경직과 영락교회처럼 에큐메니컬 측의 주류 지도자와 대형교회도 반공을 기반으로 한 지배체제의 일부가 되었다.

15) 김주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담론 분석」, 185.

이다. 이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때였다.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고 위상이 추락되었다. 한국교회에서는 반에큐메니컬 측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반에큐메니컬 측의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측에 속하지만 반공과 보수주의적 경향을 지닌 대형교회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에큐메니컬 측은 한국교회에서 대표성이 축소되고, 지도력의 공백과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로 대표되는 일치운동기구는 위상이 약화되고 기존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협의 일치운동은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의 다양화를 시도했다.[16)]

에큐메니컬 측이 주도하는 일치운동의 위상 저하라는 지형 변화는 반에큐메니컬 측인 보수 개신교의 조직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출범하면서, 교회협은 그동안 가졌던 개신교 교단연합체로서 대표성을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에큐메니컬 측의 일치운동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등을 통해 구축한 사회적 위상은 시민운동이나 이웃종교의 부상으로 약화되었다. 1989년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이 교회협의 몇 가지 기능을 대체했다. 이들 시민운동의 상당수는 개신교인의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일반 시민운동이 종교계 운동을 압도하면서 기존의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17)]

---

16) 교회협의 일치운동이 침체한 이유로 내부 힘겨루기, 재정부담의 증가와 교회협의 보수화, 상징성과 대표성의 약화, 인적 쇄신의 실패와 도덕적 권위의 붕괴 등이 지적된다. 손승호, 「1987년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변화」, 30-39. 민주화이후 교회일치운동의 위기와 다양화에 대해서는, 손승호, 「민주화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의 침체와 활로 모색-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31-68; 강인철, 『민주화와 종교』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2)를 참고하라.

17) 신재식, 「한국 시민운동과 개신교: 전개와 전망」,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에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엮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53-277; 장규식,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개신교와 시민사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48 (2018): 5-30을 참고하라.

이 시기에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남북나눔운동' 등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생태문제, 여성문제, 농촌문제, 이주민노동자문제, 장애인문제, 소비자문제 등 생활문제로 운동의 관심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교회협은 정의로운 평화, 평화통일, 경제정의, 기후정의와 생태정의에 관련된 활동을 위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18] 이것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이 민족문제나 계급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에 기초한 운동에서 생활문제를 다루는 사회운동으로 일치운동의 방향이 확장되거나 전환된 것을 의미했다.

민주화 이후 그동안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협은 내부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교회협은 교단협의체로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산하 지역조직이 점차 사라지면서 운동체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교회협은 1990년대 들어 세계교회로부터 교회일치운동과 관련된 지원이 줄어들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했다. 교회협은 보수 대형교단이 새로 가입하면서 교단 중심의 협의회적 성격의 강화되었으며, 때로는 재정 지원을 특정 보수 대형교회에 의존하면서 교회협 내부에서 보수 측의 목소리와 주도권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교회와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확장되었다. 교회협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측의 교단들은 WCC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해외 기관이나 기구들과 교류하고 협력했다. 그렇지만 반에큐메니컬 측의 교회들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이후 세계교회와 교류를 제한하고 WCC와 교회일치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19]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으로 양분된

---

18) 2013년 이후 교회협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관해서는, 황홍렬,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본 한국 기독교의 회심과 변혁의 과제」, 『선교와 신학』 40 (2016): 107-149; 「WCC의 생명선교와 한국교회의 생명선교 과제」, 『선교와 신학』 34 (2014): 50-70을 참고하라.

19) 반에큐메니컬 측을 대표하는 예장합동의 경우 예장통합과 통합 시도들이 실패한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보수신학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교회일치에 대해 보다 폐쇄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회일치운동과 관련해서 WCC와 교회협과의 단절 재확인, ICCC와 단절, 제한된 강단교류 추진(고신, 예성, 기성만 인정), 공동번역성경 사용 금지, 진보 기구에서 탈퇴, 타교파와의 연합 사업 혹은 강단 교류 제재, 유학 가능한 학교 선별, 세속화운동 경계 등을 시행했다. 예장합동은 1998년 이후 보수교단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안수강, 「장로교단 합동/통합의 분열과 일치 운동 및 합동 측의 신학적 정체성 고찰 - 합동 측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33 (2018): 248-294를

상황에서,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는 에큐메니컬 측의 일치운동의 가장 뚜렷한 성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드러난다. 첫째, 일제 강점으로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강한 민족적·정치적·사회적 지향성을 갖게 되었다. 둘째, 한국전쟁은 한국교회의 반공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한국교회의 분열은 한국교회 지형을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으로 양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이 주도했지만, 민주화 이후 일치운동의 위상은 저하되고 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역사적 과정에서 이런 요인들이 씨실과 날실로 엮이면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일치운동은 한국교회의 가시적 일치나 신학적 일치를 지향하는 '기구' 중심적 일치운동보다는 '운동' 중심적 일치운동에 기울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존의 교회협 중심의 일치운동이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통해 갱신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여전히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역사적 과정을 경험한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이론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의례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 Ⅲ.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현황

### 1. 신학: 일치운동에서 신앙고백과 신조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교회 공동의 신앙고백이나 신조 등의 신학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이 보여줄 수 있는 공동의 신앙고백이나 신조 같은 것이 있는가? 1932년 '조선예수교

---

참고하라.

연합공의회 사회신조' 정도만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일치된 신앙고백의 길은 여전히 멀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은, 남인도연합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던, '12신조'를 채택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일치를 기대하면서 에큐메니컬적 신조인 12신조를 우선 채택한 것이다.[20] 한국교회는 교단 분열 이후 교단별로 자신들만의 신앙고백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의 경우(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장, 고신)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이 '12신조'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기장을 제외한 예장통합, 예장합동, 고신이 채택하고 있다.

장로교 주요 교단이 채택한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다. 예장통합은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요리문답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1986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1997년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를 작성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기장은 1972년 김재준 목사 주도로 새로운 신앙고백서인 '신앙선언'과 '12신조'를 채택했다. 예장합동과 고신은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교회협 회원교단의 경우, 감리교는 1784년 존 웨슬리가 발표한 25개조의 감리회 종교강령을 따른다. 1930년 '교리적 선언'을 하였으며, 1997년 '감리회신앙고백'을 제정했으며, 동시에 '사회신경'을 개정했다. 성공회는 교회 분열 이전의 모든 교회가 고백한 '사도신경'과 '니케아신조'를 사용한다. 한국정교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를 기본 신조로 받아들인다. 구세군은 교리 11개 조항을 따른다.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사도신조를 비롯해 루터의 대교리문답서 등 다양한 신조와 교리를 받아들인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신수동, 여의도순복음)는 비교적 간략한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는 교단마다 다른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20) 안교성, 「에큐메니칼 교회로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정체성과 증언」, 17.

개신교가 성립 과정에서 선교지 분할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개신교인의 이동 등으로 전통적인 교구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된다. 또한 국가교회나 지배종교 경험이 없는 한국교회에 개교회주의가 정착하면서 '공교회'와 '공교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게다가 교회 분열 과정에서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나 신앙고백 대신 교권주의가 강화되고 교회 정치가 더 큰 영향을 준 것도 연관된다. 이렇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은 교회 분열 과정에서 각각의 신학적 전통을 고착화시켰다. 특히 신조나 신학의 역사성과 시대성에 대해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이 전혀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신앙고백이나 신조 채택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신학과 한국교회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신학은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에 통일된 하나의 신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세계교회의 일치운동 자체가 다양한 흐름이 모인 연합운동으로 특정 신학적 입장이나, 공식적인 신학이 없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교회의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회원 교회들의 신학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일치운동에는 다양한 그리스도교 교파와 신학 전통이 느슨하게 연대할 뿐이다.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비교적 빠르게 소개되었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존'(Justice, Peace, and Integration of Creation, JPIC), '정의와 평화의 순례'(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PJP) 등에 관련된 에큐메니컬 신학은 1960년대 이후 민주화, 인권, 도시산업선교 등의 일치운동부터 현재의 정의, 평화, 통일, 생명운동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21] 이런 흐름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상당 부분이 출발 초기부터 세계교회와

21)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학의 흐름에 관해서는,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한들출판사, 2011); 『세계교회협의회와 신학』 (서울: 북코리아,2013); 안스 요아힘 반 데어 벤트, 『WCC의 에큐메니칼 신학』, 연규홍 옮김 (서울: 동연, 2013)

의 협력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 연관된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 동향이 빠르게 소개된 만큼 한국교회 안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치에 대한 WCC의 신앙과직제위원회(이하 신앙과 직제)의 논의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소개되고 수용되고 있는가? 신앙과 직제는 WCC에서 교회일치에 관련된 신학 문제를 다루는 연구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신앙과 직제의 논의 결과물들은 에큐메니컬 측의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왔다.[22] 그런데 신앙과 직제의 대표적인 문서인 「세례·성만찬·직제」(*Baptism, Eucharist, Ministry*, 1982)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Common Vision*, 2013)는 교회일치에 대한 대표적인 신학적 결과물이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를 신학적으로 소화하고 심화시켜 확산하는 논의는 상당히 드물다.[23]

다른 한편으로, WCC의 신앙과 직제 논의와 별개로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신학 논의가 있다. 교회협과 가톨릭, 정교회가 참여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매년 1회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을 진행하며, 주제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신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일치포럼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에 따른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모색하고 있다.[24]

---

등을 참고하라.

22) 신앙과 직제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형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교회의 에큐메니즘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연구: 종교 다원주의 맥락에서 WCC의 신앙과 직제 운동에 비추어」,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4 (2009): 221-257; 이승갑,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그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의 역사와 미래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1 (2011): 119-143을 참고하라.

23) 『교회』에 관련된 논의로, 전철,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일치의 과제 –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WCC, 2013)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68 (2016): 85-110; 박도웅,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중요 주제와 종합」, 『교회협 신학위원회 교회론 심포지엄 자료집』 (2021.8.26.): 5-26이 있다.

24) 그동안 일치 포럼은 제1회 '교회일치운동의 역사와 전망'(2000)부터 제21회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2021)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 그동안 다룬 주제들은 http://fno.or.kr/forum을 보라.

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신학은 한국교회 안에 비교적 빠르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 내용이나 방향이 에큐메니컬 측의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를 넘어서, 각 교단의 지역교회와 목회현장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신앙고백이나 신조, 신학 등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일치를 위한 가시적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적 잔재인 신학적 관점과 노선의 차이는 여전히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 사이의 신학적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있다.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 사이에 있는 신학적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적 일치를 위해서 풀어야 할 일차적 과제이다.[25] 한국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현실인식 등을 반영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에 담긴 지역의 토양에 뿌리내린 신앙고백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성취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획기적인 표식이 될 것이다.

## 2. 기구: 일치운동에서 기관과 조직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이끌거나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연합기관으로는 교회협을 비롯해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교육협회,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기독교학생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기관이다. 1924년에 구성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시작해서, 해방 후 1946년 '조선기독교연합회'(KNCC)로 재건되고, 1948년 '한국기독교연합회'로, 1970년 '한국기독교교회협

25) 반에큐메니컬 측은 WCC의 신학과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에 대해, WCC가 단일교회를 지향하며, 용공적이며 세속적이고,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이며 종교다원주의이며 혼합주의라고 비판한다. 이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박성원·이형기, 「WCC 바로 알 자」, http://www.wcc2013.kr/sub04/sub01.php?ptype=view&code=board04_1&idx=5515을 참고하라.

의회'(NCCK)로 개칭되었다. 현재 교회협은 9개 교단과 5개 기관의 연합체이다.[26] 회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구세군대한본영, 정교회한국대교구, 기독교한국루터회로 9개 교단이다. 이중 WCC 회원 교단은 예장통합과 기장, 기감, 한국성공회 4개 교단이다.

교회협을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 측의 활동은 민주화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하면 침체되거나 쇠퇴했다. 외부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교회협이 추동했던 민주화나 인권운동에 대한 필요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각 분야별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개신교 활동가들 상당수가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기총의 등장으로 교회협이 독점하던 개신교 대표성은 약화되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협에 새로 가입한 보수성향의 교단과 기존의 회원교단 내 보수적 다수파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노선 갈등이 발생하고 교회협은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교회협이 교단 중심 협의회 체제로 진행되면서 교권 다툼과, 관련 인사들의 자리다툼이 교회연합기구에서 있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결합되면서 교회협과 일치운동은 위상 저하를 경험하고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

민주화 이후 다양한 교회연합기구들이 등장했다. 1989년 한기총의 출범이 대표적이다. 한기총은 1988년 2월 교회협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에 대한 반발에서 태동했다. 한기총은 보수적 성향의 교단들과 단체들이 총망라된 보수교단연합체의 성격을 지녔다.[27] 이 조직은 한국 개신교를 교회일치운동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하는 틀을 고착시켰다. 출범부터 규모에서 교회협을 능가하는 거대 조직이었던 한기총은 한국교회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서도 보수적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명박·박근혜 정

26) 5개 연합기관은 기독교방송,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이다. 교회협 회원 관련해서 http://www.kncc.or.kr을 참조하라.

27) 교회협과 한기총의 비교에 관해서는, 박명수, 「반공, 통일, 그리고 북한선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의 비교연구」, 『성결교회와 신학』 21 (2009): 119-145를 참고하라.

부에서 개신교의 대표성을 지닌 기구처럼 대우받았다. 2011년 이후 한기총은 이단 영입문제와 금권선거 파문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주요 교단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거의 영향력을 상실한 단체로 전락했다.[28] 2012년 한기총을 탈퇴한 교단들은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으로 분리되었다. 2022년 현재 한국 개신교의 최대 연합기구는 2017년에 세워진 '한국교회총연합'(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이하 한교총, www.ucck.org)이다.

교회협이나 한기총, 한교총 등은 총회와 교단 차원에서 전개하는 기구적(institutional) 일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목회자 개개인이 참여하는 일치운동이 있으며, 1998년에 창립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 www.kpastor.org)가 대표적이다. 한목협은 복음주의적 회원교단 내 개혁그룹이 중심인 조직으로 온건개혁주의 노선에서 교회분열을 반성하고 교회일치를 위해 목회자 갱신과 교회 갱신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과 관련해서 개신교의 기구적 일치운동과, 목회자 일치운동 외에도, 일치운동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연구단체들이 있다.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신학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연구단체는 세계교회나 해외 에큐메니컬 기구에서 지원하는 에큐메니컬 기금을 기반으로 출범하고 활동했다. 1990년대 이후 이런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연구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면서 연구단체의 역량이 약화되고 활동은 침체되었다. 연구 역량의 약화와 활동의 축소는 민주화 이후 에큐메니컬 측의 활동과 영향력의 위축과 관련된다.[29]

---

28) 한기총은 출범 당시 36개 교단과 6개의 기관이 가입했는데, 교회협의 4-5배 규모였다. 1999년 1월에 50개 교단과 15개 기관, 2003년 8월에 61개 교단과 1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 대형교회의 지원 속에 자금력과 대중 동원력을 갖춘 한기총은 사회적 영향력을 상당히 과시했다. 그러나 2012년 예장통합이 탈퇴하고, 기침, 한국대학생선교회 등이 탈퇴한 후 그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도로 추락했다.

29) 2000년대 이후 개신교 연구단체의 현황에 대해서는, 손승호, 「2000년대 이후 기독교 싱크탱크의 둔화」, 『기독교사상』 744 (2020.12): 41-53을 참고하라.

지금까지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관련해서 언급된 기구들은 대부분 개신교의 교회연합기관이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교에서 교회일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활동해 온 역사가 있다.[30] 이런 활동 가운데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Korean Churches, 이하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는 한국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는 2014년에 창립되었으며, 한국천주교회와 한국정교회, 교회협, 그리고 교회협 회원 교단인 예장통합, 기감, 기장, 한국구세군(구세군 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신수동)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순복음),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참여하고 있다.[31]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는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모델에 따라 운영하지만 직접 관계는 없다. 이 협의회는 신학적 대화를 위해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신학적 대화를 바탕으로 선교적 과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그리스도교 교회일치 활동에 대해, 개신교 측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교회협 회원교단은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에 참여하는 데 반해, 반에큐메니컬 측은 이 기구를 반대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대표적인 보수교단으로 1959년

---

30) 천주교-성공회 상호교류 시작(1965), 한국천주교회(CBCK)-교회협 일치기도주간 준수, 교회협-한국천주교회 성서 공동번역위원회 협의(1967), 공동번역위원회 구성(1968, 공동번역성서 완간, 1977), 천주교-성공회 성탄축하예배(1968), 루터교-정교회 일치운동에 합류(1986), 일치포럼 시작(2000), 교단대표간담회 시작(2001),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 조직과 '신학자연구모임' 시작(2002),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의 해' 선포와 일치기도회 3000여 명 참석(2009), WCC 부산총회 참석한 교황청 대표들 성공회·개신교·정교회 방문(2013),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2014)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31)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한국천주교회, 한국정교회, 교회협, 교회협 회원교단은 그리스도인의 일치 증진을 위해 1986년 일치기도회를 시작했다. 2001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을 조직해 매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신학대화, 일치포럼, 일치 피정, 일치순례, 신학생 교류, 이웃과 하는 성탄음악회 등 일치운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는 한국교회일치 운동의 활성화와 신학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을 개편한 것이다. 회원교회와 활동에 관해서는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 홈페이지(http://www.fno.or.kr/)를 참조하라.

총회에서 WCC의 영구 탈퇴와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반대를 결의했는데, 2014년 총회에서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는 예장합동의 신학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32] 한국 그리스도교 전체의 일치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는 한국 개신교의 절반인 반에큐메니컬 측의 동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3. 의례: 일치운동에서 예배와 예전

교회일치로서 코이노니아는 신앙고백과 성례전, 섬김을 통한 일치를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일치는 신앙고백이나 신학적 동의와 일치를 넘어서 신앙의 사귐을 통해 구체화된다. 한국교회는 의례적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일치를 위한 예전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일치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전이 '세계성만찬주일'(World Communion Sunday)이다. WCC는 1982년 「세례·성만찬·직제」 문서가 제출된 이래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성만찬주일로 결의하고 지켜왔다.[33] 세계성만찬주일을 통해 각 교회의 현장에서 주님의 성찬을 하나의 교회라는 은총 안에서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계성만찬주일을 전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WCC 회원교단들 가운데 교단 홈페이지에 실린 교회력을 보면, 기장이나 기감은 세계성만찬주일을 교회력에서 표시하고 있지만, 예장통합이나 여타 교단은 빠져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또 다른 실천이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이다. WCC의 신앙과 직제는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와 함께

---

32) 이에 대해서는 김길성, 「NCCK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근 활동에 대한 연구」, 『신학지남』 85.3 (2018.9): 29-71을 참고하라.

33) 세계성만찬주일은 1936년 미국장로교회(US Presbyterian Church)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40년 미국기독교협의회(당시 Federal Council of Churches, 현재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에 의해 교회력에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자료를 제공한다. 1968년부터 시작한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자료는 매년 특정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집단이 기도 주간을 위한 초안을 만든다.[34]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자료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기반을 둔 중동교회협의회가 주제를 선정하고 초안을 준비했다. 한국교회에서는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가 번역해서 공유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에서 일부 지역교회가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예배로는 부활절연합예배와 남북연합예배가 있다. 부활절연합예배는 1947년 4월 6일에 남산에서 처음 거행되었다. 이 예배는 1946년 재건된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주한미군과 함께 개최한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에는 부산에서 모이다가, 1954년부터 남산에서 다시 모였다. 한국장로교회가 분열한 이후, 1962년부터 부활절연합예배는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이 따로 모였다. 1973년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0여 년의 분열을 청산했으며, 1990년대에 부활절연합예배 위원회가 상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부활절연합예배의 주최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다. 2006년에는 교회협-한기총의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가 시작되었다. 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이합집산과 주요 교단의 입장에 따라 굴곡을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2022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데, 한국 개신교 최대연합기관이 된 한교총의 회원교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교회 일치운동과 관련된 또 다른 실천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이 있다. 2013년 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을 위한 예배문을 작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

34) 2022년 기도자료집은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201060002를 보라.

남북공동기도문은 교회협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Korean Christian Federation, KCF)이 함께 작성해서 사용했는데,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이 함께 남북공동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부활절연합예배가 교단 정치라는 국내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과 남북공동기도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라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Ⅳ.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위상과 특징, 전망

## 1.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위상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해 온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위상을 살펴본다. 일치운동을 한국종교와 한국 그리스도교 지형, 일치운동의 주체, 일치운동의 주제, 이렇게 세 측면에서 접근한다. 지형과 주체, 주제를 서로 교차해서 바라볼 때, 현재의 일치운동의 위상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한국종교의 지형과 한국 그리스도교 지형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자. 물론 종교 지형에서 일치운동의 위상이 한국사회에서 끼쳤던 영향과 비례하거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일치운동의 외연을 양적 수준에서 참조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한국사회에서 비종교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따르면 비종교인이 60%였다. 종교인 40% 가운데 종교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였다.[35] 한국교회 일치운동이 지금까지 개신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일치운동은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 중 개신교 17% 안에서 실행된 것이다.

---

35) 갤럽조사의 2021년에 따른 한국종교현황은 다음을 참고하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정부 통계로 가장 최근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이다. https://www.data.go.kr/data/3075609/fileData.do.

그런데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한국 개신교의 절반이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도 주요 개신교 교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예장통합 239만, 예장합동 238만, 기장 21.5만, 고신41만, 감리 122만(2021년 자료), 기성 39.9만으로, 한국 개신교 주요 6개 교단의 교인은 703.8만이다.[36] 한국에서 장로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약 70% 차지하고 있으며,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두 교단인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이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으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 지형에서 보면 일치운동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측, 즉 교회협 회원교단은 한국개신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일치에 관련된 한국교회는 한국 전체 인구의 8-9%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분열은 일치운동을 한국 개신교 안에서 절반의 운동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특히 88선언 이후 보수 개신교인들이 결집하면서 개신교 지형 전체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조가 심화되었다. 한기총과 뉴라이트 운동을 비롯한 보수 개신교의 약진은 교회협의 약화와 함께 보수근본주의 개신교의 우세라고 할 수 있다.[37] 이들 반에큐메니컬 측과 에큐메니컬 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현재의 일치운동의 확산과 성취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한국 종교지형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치운동에 관련된 개신교회나 개신교인의 수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한다.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이런 수적 위상과는 무관하게 한국교회 초기부터 민주화시기까지 한국사회를 추동하는 동인이었다. 그런데 시민사회 영역으로 주도권의 이양, 종교인구의 축소, 개신교 안에서 보수 반에큐메니컬 측의 약진 등으로 인해서, 일치운동의 위상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일치운동에서 주체의 문제이다. 이것은 교회일치를 추동해 온 에큐메니컬

36) 통계 수치는 발표 기관과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18년 통계청 통계에는 개신교인이 967만 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로는 1,132만 명으로 나온다.

37) 1990년대 한국개신교의 보수 우파의 승리에 대해서는, 강인철, 「수렴, 혹은 헤게모니?: 1990년대 한국 개신교 지형의 변화」, 『경제와 사회』 62 (2004): 18-53을 참조하라.

측의 내부문제이며 세대문제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일치운동이 기구적으로는 교회협이 중심이었다면, 인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민주화시대를 경험한 남성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다. 일치운동을 이끈 주력 집단의 절대 다수가 기독청년운동 출신이었다.[38]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기독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로 이후 교회협뿐만 아니라,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 등을 창설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했다.[39] 그런데 이렇게 핵심 역할을 하던 기독청년운동의 주축들은 일치운동의 지도자로 다양한 분야를 선도했지만, 일치운동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력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독청년운동 출신과 더불어 '특수선교권'이나 '사회선교권' 출신들이 1970년대 이후 교회협의 주요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회선교기관에서도 더 이상 후속 지도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이끌었던 기존 주체들이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는 일에 오랫동안 소극적이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세대 양성의 실패는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활발하게 이끌던 세대의 특정 집단이 한국 그리스도교 연합기관에서 보였던 권력 독점과 상당 부분 관련된다. 이렇게 일치운동에서 특정 남성 세대 독점으로 인해 청년과 여성, 평신도 집단의 설자리가 좁아졌다. 민주화 이후

---

38) 기독청년운동은 일제 강점기 동안 협성회, 엡윗청년회, 면려청년회, 기독교청년회(YMCA)와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등 다양한 조직에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해방이후 1948년 '대한기독학생회전국연합회'(Korean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KSCF)를 창립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학생YMCA, 학생YWCA, KSCF는 기독청년운동의 중추였다. KSCF는 1957년 '한국학생기독교운동'(KSCM, 1958-59)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59년 KSCM은 학생YMCA, 학생YWCA와 연합하여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orean Student Christian Council, KSCC)를 구성했다. 이런 청년학생운동 기구는 세계기독학생총연맹(WSCF)과 일정 관련을 가졌다. 한국교회 일치운동과 기독청년운동의 역할에 관해서는, 조병호, 『한국기독청년학생운동 100년사 산책』을 참고하라.

39) 민주화 이후 교회협과 KSCF 모두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 KSCF는 1989년 이후 총무 인선의 문제가 계기가 되어 '아이덴티티 그룹'과 '비아이덴티티 그룹'으로 분열하게 된다. 전자는 YMCA를 중심으로 분리하고 이후 경실련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후자는 KSCF에 잔류했다. 이 과정은 잠재적인 신학적 정치적 차이와 대립들이 표면화된 것이다. KSCF의 결성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50주년 기념사업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50년사』, 55-66을, 분열 과정에 대해서는 434-447을 참조하라.

기독청년들은 성장할 기회가 적은 기존의 교회일치 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열려있는 일반사회조직으로 이전했다. KSCF와 같은 학원선교 기관들의 둔화는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40]

더불어 최근 교회협이 목회자 중심의 교권 중심적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평신도 지도력의 활동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 이로 인해 평신도 전문인들이 교회일치 기구를 떠나면서 교회협 같은 교회연합기관에 비슷한 경험을 한 한국전쟁세대와 민주화세대 목회자들만 남게 되었다. 또한 남성목회자 중심의 일치운동은 여성의 자리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다.[41] 일치운동을 견인할 새로운 세대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한 것은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쇠퇴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여성, 청년, 평신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일치운동의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

셋째, 일치운동의 주제이다. 이것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를 통해서 일치운동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운동 지향적 경향이 강했다. 기독청년운동이나 사회선교권 출신이 일치운동의 지도력을 형성하고 군사독재시기에 민주화와 인권운동, 통일운동에 집중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치운동이 한국사회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며, 복음이 한국사회에 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그동안 운동 지향적 방향에서 전개되고, 그것이 지닌 역사적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운동 지향적 일치운동의 강세는 교회적 삶의 근간이 되는 일치운동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제한하는 제약으로 작용했다. 즉 세계교회나 지역교회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주제나 활동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교회 일치운동에서 보면 한국교회에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 논의는 상당히 미약하다. 한국교회

---

40) 손승호, 「2000년대 이후 기독교 싱크탱크의 둔화」, 51-52.

41)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경험은 신선, 「에큐메니칼운동의 여정」, 『한국여성신학』 63 (2005.12): 127-134를 참고하라.

의 일치운동은 세계교회의 일치운동의 보편적 관심사인 신앙과 직제, 예배 등의 주제를, 즉 신학적·목회적 주제, 사회적·공동체적 주제, 예전적 주제를 보다 균형 있게 전향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교회 맥락에서 보면,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한국에서 교회와 신학 안에 대중적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사회참여와 정치투쟁의 공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일치운동은 전도나 선교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치운동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참여와 정치투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최근 일치운동의 관심사가 민족문제나 계급문제, 통일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에 기초한 운동에서 생활문제를 다루는 사회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치운동이 지역교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대중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 일치운동의 주제와 방향은, 일치운동이 양극화된 한국교회를 포용하고 반에큐메니컬 측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전히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 2.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특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특징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서구교회와 역사적으로 다른 경험에서 출발했다. 그리스도교와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사회적 위상이나 역할은 서구의 그것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약 250년 역사의 한국 가톨릭과 약 150년 역사의 한국 개신교는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최근에 전래된 외래종교이며 한국종교 지형에서 보면 소수파 종교이다.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그리스도교가 지배종교나 주류종교였던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교를 국가종교로 경험한 적도 없다. 서구교회의 일치운동이 서구 식민지와 선교지의 확장과 관련되었다면,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화 과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교회일치운동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는 일치운동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힘과 무게감을 갖는다. 개교회주의는 인사, 행정, 재정을 각 지역교회가 전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나

보편교회(universal church)나 전체교회(the whole church), 그리고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관심 등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게다가 민주화 이후 대형교회로 성장한 개교회들에 의해 교단연합으로서 일치운동이 오히려 약화되었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중심이 된 개인 차원의 일치운동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둘째, 한국 그리스도교는 자생적이며 주체적으로 출발했지만,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한국교회 초기에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장로교와 감리교 같은 소수 주류교회 소속 선교부가 중심이 되어 출발했다. 세계교회 일치운동이 서구 개신교 주도로 진행된 것처럼 한국교회 일치운동도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즉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개신교 울타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개신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 등이 함께 하는 일치운동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신교와 가톨릭의 만남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기구적 모임이 구성되었다.

셋째,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운동 지향적 일치운동이었다. 다문화 다종교 단일민족의 이념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 자리 잡기 시작한 한국교회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으며, 일치운동 자체가 사회변혁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일치운동의 사회변혁적 흐름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과 계몽운동으로, 해방이후 군사독재와 산업화시기에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 교육과 산업, 문화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그런데 이런 강한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경향성은 상대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일치신학과 일치운동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출발부터 세계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진행되어 왔으며, 세계교회는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추동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세계교회의 재정지원과 협력이 줄어들면서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재정적 난관에 처하게 되었으며, 민주화이후 일치운동이 위축된 것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 세계교회의 재정지원은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추동력이었지만, 동시에 한국교회 일치운동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경제적 자생력 갖추

는 것을 제약하는 양날의 칼이었다.

다섯째,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한국 개신교의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이런 분열은 단순히 신학적 지향성이나 입장에서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입장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단순히 신학적 입장의 차이 같은 단순한 종교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정치적 현상이다.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의 만남은 신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념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교회 일치운동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 회중과의 양극화이다.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신학은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빨리 한국교회에 소개되었지만, 그 신학적 논의가 심화되거나 포괄적으로 확장되기보다는 일치운동에 관련된 일군의 신학자와 목회자 집단에서 소비되었다. 즉 엘리트 중심과 운동 중심의 일치운동은 교회일치운동과 에큐메니컬 신학을 한국교회 전반에 대중화하거나 토착화하는 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교회협을 중심으로 한 일치운동에는 여전히 교회협과 회원교단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전국 교회일치운동과 지역교회일치운동 사이에도 괴리가 있고, 교회협 회원교단 총회와 소속 지역교회 사이에도 괴리가 있다. 일치운동이 지역 회중 전체로 확산되는 대중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이다.

## 3. 일치운동의 전망과 방향

이제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전망과 방향을 살펴본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교회는 분열을 넘어서 일치나 연합을 추구하려는 열망보다는 분열을 고착하고 강화하려는 경향이 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분열 이후 양측 모두 내부적으로 자기 진영을 확고하게 구축했다. 각 교단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분열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분열에 대한 대의를 확대 재생산하고 분열의 원인을

다른 교단이라는 외부의 적으로 돌렸다. 또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이미 형성된 정체성을 주입하고 전승시켰다.

이 결과 반에큐메니컬 측은 내세 지향적, 개인주의 윤리 지향적, 교회성장운동 지향적, 개교회 중심적, 이념적으로 선택적인 정치참여로 자기 정체성을 더 강화시켰다. 반면 에큐메니컬 측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교 정체성이나 윤리, 선교, 교회와 국가 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층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런 분열된 자기 정체성은 교회 분열을 더 강화시켰다. 각 교단이 제도와 권력, 인맥과 재력, 관습과 소통 방식에서 독자적인 생활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이제는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각 측의 생태계가 공고해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미 다른 종류의 종이 되어 상호교류가 불가능한 상황과 비슷하게 보인다.

이렇게 공고해진 분열 지형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앞길은 낙관적이지 않다. 일치운동을 한다는 것은 각 교단에서 이렇게 정당화 된 역사와 분열 당시 지도자들과 이를 강화시켜 온 현재 지도력에 대한 비판과, 때로는 이들과의 대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일치를 위한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 일치운동이 요청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일치 활동은 특히 현재 교회일치운동은 다양한 교회들의 제도적, 교리적, 예전적 통일이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일치운동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현대 교회일치운동에 내재한 타자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태도는 다른 교회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생명세계 전반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런 존중과 공존, 협력을 지향하는 교회일치운동은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갈등을 넘어서 종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활동이다.

그렇다면 일치운동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일치운동의 영역과 방향, 주체와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영역을 기존의 에큐메니컬 측 중심의 논의에서 한국 개신교 전체로,

나아가 한국 그리스도교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치운동의 본래 의미대로 에큐메니컬 측과 반에큐메니컬 측이 함께하는 일치를 모색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일치운동의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 지형이 일치운동에 대한 입장에서 양분되어 있으며, 양측이 각각 독립된 교회생태계와 목회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존중과 소통, 환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열 세대나 분열을 정당화하고 강화해 온 세대가 서로를 비판하고 혐오의 대상인 '타자'로 규정해 왔던 일관된 흐름에서 일치운동을 새로 모색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신학적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하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회론적 인식을 대화의 바탕에 두고, 한국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요청되는 공동체적 삶과 책임적 태도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신앙고백이나 교리적 일치, 또는 교단의 제도적 일치보다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공동선을 향해 한국교회가 함께 과제 수행하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이 '분열의 트라우마'를 우회하는 길로 보인다.

이런 분열의 트라우마를 우회한 이후에 새로운 세대 즉 분열의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운 세대가 새로운 일치의 장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분열의 트라우마가 없는 세대를 일치운동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신학교육이 요청된다. 한국교회에서 교회일치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교회일치운동과 신학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부족에서 왔으며, 그 직접 원인은 적절한 신학교육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신학교육 과정의 대부분이 개별 교회 목회를 위한 목회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교회 중심과 교파 중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개별 교단 중심주의, 반에큐메니컬이나 에큐메니컬 측의 독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일치를 위한 개방적인 신학교육일 것이다.

# V. 나가는 말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 안에서 진행된 활동으로, 한국교회의 내적 요인과 한국사회의 외적 요인이 함께 결합되어 발효된 사건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의 지형과 문양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주의의 강화,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반공주의 이념, 군사독재와 산업화, 민주화 등의 역사적 요인과 한국교회가 만난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흐름과 문양을 역사적 흐름과, 신학과 기구적와 예전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한국사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에 따라 네 시기로 구분해서 조망했다. 신학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신앙고백이나 신조, 신학에서 일치를 위한 활동을 검토했다. 기구에서는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일치운동 기관이나 기구 등의 조직을 살펴보았으며, 예전에서는 실천적 차원으로 진행된 공동예배나 일치기도회 등의 의례를 다루었다.

이어서 한국교회 일치운동의 위상을 한국 그리스도교 지형, 일치운동의 주체, 일치운동의 주제 이렇게 세 측면에서 자리매김했다. 한국교회 일치운동은 개신교 에큐메니컬 측에서 한국전쟁과 민주화 세대 남성이 주도한 운동 지향적 일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역사적 경험과 전개 상황에 따른 성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체된 일치운동에서 새로운 계기를 모색하기 위해 일치운동의 방향과 주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전망했다.

한국교회는 분열로 인해 일치운동이 절반으로 나뉘는 경험을 했다. 한국교회의 분열에 따른 배타주의와 개교회주의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과 일치운동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 계기를 일치운동으로 인한 분열의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세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기존 일치운동 세대의 성공과 실패를 마중물 삼아 토착화된 한국적 일치운동을 구현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에큐메니컬운동, 에큐메니즘, 한국개신교, 한국교회 일치운동,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원고접수일: 2022년 05월 12일
심사완료일: 2022년 06월 22일
게재확정일: 2022년 06월 25일

# 참고문헌

강인철. 「수렴, 혹은 헤게모니?: 1990년대 한국 개신교 지형의 변화」. 『경제와 사회』 62 (2004): 18-53.

_____. 『민주화와 종교』.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2.

김길성. 「NCCK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근 활동에 대한 연구」. 『신학지남』 85.3 (2018.9): 29-71.

김동진.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1.

김명배.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역사와 일치 추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개혁신학』 23 (2008): 241-277.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김주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담론 분석」. 『대학과 선교』 26 (2014): 167-198.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201-228.

박도웅.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중요 주제와 종합」. 『교회협 신학위원회 교회론 심포지엄 자료집』 (2021.8.26.): 5-26.

박명수. 「반공, 통일, 그리고 북한선교 - 한국기독교교회협회회(NC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의 비교연구」. 『성결교회와 신학』 21 (2009): 119-145.

박상증 편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박성원·이형기. 「WCC 바로 알자」. http://www.wcc2013.kr/sub04/sub01.php?ptype=view&code=board04_1&idx=551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박응규.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재조명」.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149-182.

밴트, 안스 요아힘 반 데어. 『WCC의 에큐메니칼 신학』. 연규홍 옮김, 서울: 동연, 2013.

손승호. 「1987년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변화」. 『기독교사상』 709 (2018.1): 30-39.

_____. 「민주화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의 침체와 활로 모색-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8 (2018): 31-68.

_____. 「2000년대 이후 기독교 싱크탱크의 둔화」. 『기독교사상』 744 (2020.12): 41-53.

신선. 「에큐메니칼운동의 여정」. 『한국여성신학』 63 (2005.12): 127-134.

신재식. 「한국 시민운동과 개신교: 전개와 전망」.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에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엮음, 253-277.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안교성. 「해방 전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특징」. 『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88 (2009): 7-17.

_____. 「역사의 화해, 화해의 역사」.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303-332.

_____. 「에큐메니칼 교회로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정체성과 증언」. 『장신논단』 40 (2011): 11-35.

안수강. 「장로교단 합동/통합의 분열과 일치 운동 및 합동 측의 신학적 정체성 고찰 - 합동 측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33.6 (2018): 248-294.

연규홍.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 『장로교회와 신학』 3 (2006): 87-110.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9.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이상규. 「1950년대 한국장로교회 분열과 연합에 대한 검토」. 『장로교회와 신학』 3 (2006): 47-86.

_____. 「한국장로교회에서의 세계교회협의회(W.C.C.)」. 『개혁신학』 16 (2010): 45-88.

이승갑.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그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의 역사와 미래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1 (2011): 119-143.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한들출판사, 2011.

_____. 『세계교회협의회와 신학』. 서울: 북코리아, 2013.

_____.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교회의 에큐메니즘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연구: 종교 다원주의 맥락에서 WCC의 신앙과 직제 운동에 비추어」.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4 (2009): 221-257.

임희국. 「한국교회사에서 전개되어 온 에큐메니칼 운동」.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엮음, 287-30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_____.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역사」.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39-82.

장규식. 「민주화 이후 한국의 개신교와 시민사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48 (2018.3): 5-30.

전택부.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협의회, 1979.

_____.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홍성사, 2017.

정병준. 「1959년 한국 장로교회 분열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183-198.

_____.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 (2022): 5-39.

전철.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일치의 과제 –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WCC, 2013)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68 (2016): 85-110.

조병호. 『한국기독청년학생운동 100년사 산책』. 서울: 땅에 쓰인 글씨, 2005.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50주년 기념사업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50년사』. 서울: 다락원, 1998.

황홍렬. 「WCC의 생명선교와 한국교회의 생명선교 과제」. 『선교와 신학』 34 (2014): 50-70.

_____.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본 한국 기독교의 회심과 변혁의 과제」. 『선교와 신학』 40 (2016): 107-149.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data.go.kr/data/3075609/fileData.do.

한국갤럽.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http://www.fno.or.kr/.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http://www.kncc.or.kr.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http://www.kpastor.org/.

Abstract

#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Ecumenical Movement in Korean Churches

Shin, Jaeshik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e ecumenical movement is a movement pursuing the unity of Christian churches. However, Korean churches have experienced the division of churches because of the ecumenical movement. A movement for the union and unity of churches has become a crucial factor in the conflict and division of Korean churches: The ecumenical movement has become a trauma for Korean churches. The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have taken a historical or institutional approach that focuses on its history and ecumenical institutions, respectively. This article is interested in revealing the whole features of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It deals with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within a historical trajectory, including the theoretical, social, and liturgical aspects. Through this categorical,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the topographic map of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can be drawn multi-dimensionally and holistically.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in addition to an introduction and a conclusion. The second section outlines a brief survey of its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in Korea. The section three deals with three areas, such as theology, institution and liturgy. Theological aspects including creed and confession, ecumenic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liturgical and practical activities including worship and prayer meetings. The forth section deals with the status, features, and prospects of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The status of

the ecumenical movement is described by three dimensions: the religious topography of Korean religions and Korean Christianity, the leading generation of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 core theme of the ecumenical movement. With a description of six characteristics, the prospect of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i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rection of the ecumenical movement, the new generation of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 ecumenical education.

Key Words: ecumenical movements, ecumenism, Korean Protestantism, Korean ecumenical movements,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